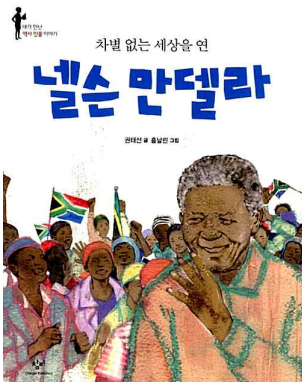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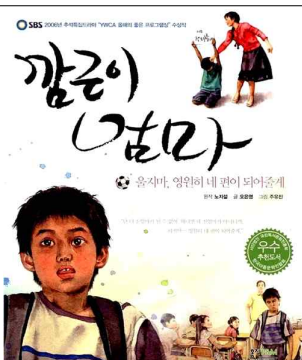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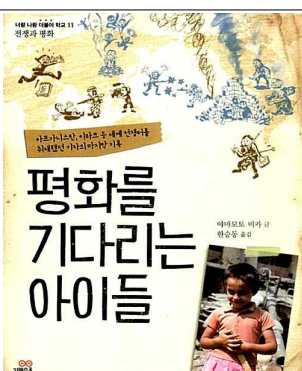



인권관련 도서 소개(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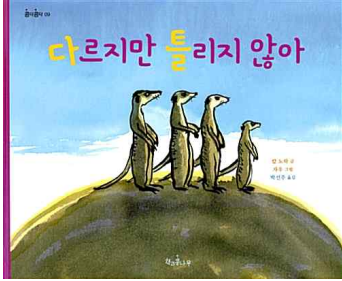
도 서	저 자	구분
<p>평화를 지키는 아이들</p> 	<p>아닉 드 지리</p>	<p>보고서/평화,인권</p>
<p>폭력으로부터, 노동 착취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성착취로부터, 차별로부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킨다'는 다짐과 또 다른 피해 아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용감한 8명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p> <p>약하다약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어린아이들은 그 때문에 검은 손길에 더욱 취약하다.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이용하고, 힘없는 아이임을 구실 삼아 착취하고 학대하는 어른들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8명의 아이들은 마치 어른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작은 몸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고 화제를 진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소방관을 보는 듯하다.</p> <p>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들 가운데 6명은 '국제아동인권평화상'을 수상했고, 파키스탄의 말랄라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존중받지 못한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몸으로 고군분투하는 지구촌 작은 영웅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p>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p> 	<p>박완서</p>	<p>동화/생명존중</p>
<p>박완서가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쓴 성장 동화. 필리핀계 어머니와 이북 동생들을 만나며 혼란을 겪는 주인공이 가족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복동이는 새로운 가족의 존재를 받아 들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p> <p>특히, 박완서 선생님은 복동이의 새엄마를 외국인으로 설정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 인종, 피부색이나 편견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가족이 하나의 가족으로 화합하는 과정이 그려진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p>나는 어린이 노동자</p> 	<p>국제엠네스티</p>	<p>논픽션/아동인권</p>
<p>인권 지킴이 시리즈 2권. 왜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며,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전 세계의 어린이 노동 실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후원 방법 등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짚어 주고 있다.</p> <p>전쟁과 빈곤 속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가혹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어 희생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주목하며, 다양한 어린이 노동 문제 관련 전문가들의 해석과 연구를 토대로 어린이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들, 국가와 NGO, 민간기업과 개인의 노력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p> <p>책을 통해 아이들이 빈곤과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값싼 노동력 등을 이유로 이용당하며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희생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p>평화란 어떤 걸까</p> 	<p>하마다 케이코</p>	<p>그림책/평화</p>
<p>한.중.일 공동기획 평화그림책 시리즈 3권.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바로 그 문제를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림책이다. 평화에 대한 의미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간결한 문장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p> <p>알록달록 색색의 제목 글자가 “평화란 어떤 걸까?” 하고 묻고 있는 표지를 넘기면, 노란 풍선을 불고 있는 아이가 “평화란 분명 이런 거야.” 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작가는 아이가 되어, 아이의 입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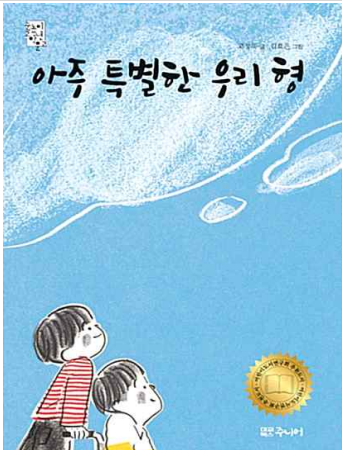
넬슨 만델라	권태선	인물전/평화
	<p>내가 만난 역사 인물 이야기 시리즈. 평생 동안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한 넬슨 만델라의 파란만장한 삶을 균형 잡힌 서술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담아낸 책이다. 억압받는 이들의 가슴에 자궁심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꿈의 씨앗을 심은 만델라의 업적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요한 순간마다 닦친 만델라의 고뇌를 살필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만델라의 기나긴 여정을 다른 이야기에 절묘하게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삽화가 물음을 돕는다.</p> <p>이 책에서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치던 만델라가 무장 투쟁의 총사령관으로 변신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히 짚는다. 만델라는 흑인들이 백인과 함께 대문을 사용할 수조차 없는 치욕적인 현실에 치열히 저항하기로 굳게 마음먹는다. 그에 따라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열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흑인들을 돕고, 민족회의 동지들과 함께 꿈꾸는 남아프리카의 미래를 '자유현장'으로 정리하기도 한다.</p> <p>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 정부가 흑인들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만델라는 더 이상 비폭력 투쟁만으로는 평화가 올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때 결단력 있게 생각을 바꾸면서도 결정을 거듭 되돌아보는 만델라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되는 패배의 요인을 곰곰이 따져 보고, 민족회의의 계획이 부실한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만델라의 노력이 책 속에서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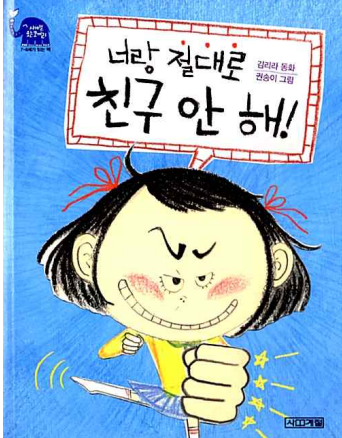
깜근이 엄마	오은영	동화/소수인권
	<p>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 명근이는 얼굴이 까맣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이다. 엄마 없이 아빠와 단 둘이 살던 명근이에게 어느 날 새엄마가 생긴다.</p> <p>명근이는 명근이 대로 아빠의 재혼을 반대하고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명근이를 꺼린다. 혼혈아 명근이와 새엄마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며 결국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므로 서로 근거 없는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주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전해 준다.</p> <p>TV드라마를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로 각색한 작품으로, 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에서 우수 도서로 추천된 바 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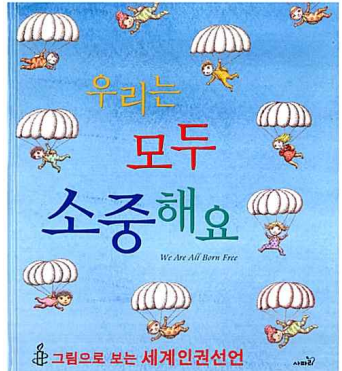
평화를 기다리는 아이들	야마모토 미카	논픽션/평화
	<p>너랑 나랑 더불어학교 시리즈 11권. 2012년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가 총격으로 사망한 일본의 기자 야마모토 미카가 어린이들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야마모토 미카는 17년 간 세계 전쟁터를 찾아다니며 어린이와 여성들이 전쟁에서 피해받는 모습을 집중 취재했다. 오랫동안 취재 현장에서 쌓아 온 저자의 경험이 책 내용을 더욱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만들어 준다.</p> <p>특히 책 속의 사진과 영상 또한 저자와 그의 동료가 직접 찍은 것으로 당시 취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지뢰에 다리를 잃은 열세 살 소년 아델, 소년병으로 끌려갔던 열다섯 소년 타티,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여덟 살 소녀 미하네 등 저자가 현장에서 만나고 인터뷰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다.</p> <p>어린이 독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위이며, 게임처럼 되어 버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쟁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까지 입는 피해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전쟁은 무력으로 멈추게 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이야말로 전쟁의 매듭이자 평화의 실마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키미	그림책/평화
	<p>마음이나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게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란다' 하고 건네는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 마디. 집단 따돌림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권한 만한 책. 일본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책뿐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다.</p> <p>아이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 문제를 고민하던 한 젊은 교사에 의해 씌어져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감동의 교육 동화다. 영어판과 중국어판에 이어 2007년에 출간된 한국판은 역량 있는 김동성 화가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그림으로 재탄생했다.</p> <p>쭈그러진 날개를 갖고 태어난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수많은 친구들을 보며 혼자 땅에 남아 외롭고 슬픈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대신 일부러 아이들에게 붙잡혀가는 친구를 보고 자신은 결코 외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p> <p>이윽고 잡혀갔던 반딧불이는 커다란 백조와 모양의 대열을 이룬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보금자리로 돌아오고, 이미 신체적 장애 따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맞는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다르지만 틀리지 않아	칼 노락	그림책/인권
	<p>쿵다쿵다 9권.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늘을 보는 방법에 대해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네 마리의 미어캣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포용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그림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져 자칫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을 쉽고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다.</p> <p>네 마리의 미어캣은 서로 꼭 닮았고 같은 곳에 살지만 자신만의 생활 습관이 있다. 이들은 어떤 도마뱀의 색깔이 가장 멋진지, 어떤 풍뎉이가 가장 바삭바삭한지 같은 걸로 항상 티격태격한다. 특히 하늘을 보는 가장 완벽한 방법에 대해 얘기할 땐 특히 더 심하게 다투는데...</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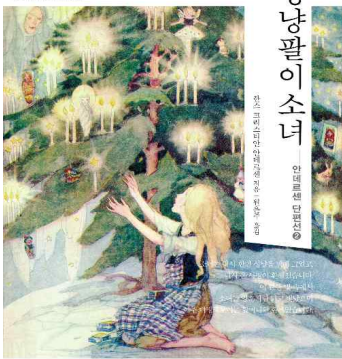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고정욱	동화/장애인권
	<p>뇌성 마비 장애가 있는 형 종식이와 절없는 어린 동생 종민이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담은 고정욱 작가의 대표작 <아주 특별한 우리 형>. 1999년에 출간되어 50만 어린이 독자에게 진정한 행복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알려 주었던 이 특별한 동화가 섬세하고 따뜻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김효은 작가의 그림과 함께 다시 찾아왔다. 장애가 있기에 더욱 용기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어른스러운 형 종식이와 절없는 마음의 따뜻한 동생 종민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 준다.</p> <p>외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던 개구쟁이 종민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를 탄 형 종식이가 나타난다. 형은 뇌성 마비 장애가 있어 일그러진 얼굴에 팔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처음 만난 동생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p> <p>지금까지 엄청난 사실을 숨겨왔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혼란스러운 마음에 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던 종민이는 밥도 안 먹고 울어도 보며 반항하다가 마침내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데... 하지만 종민이는 최선을 다해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형 종식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장애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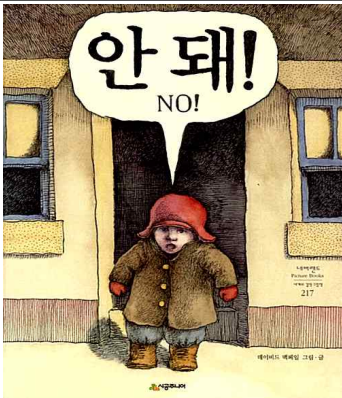
너랑 절대로 친구 안해	김리라	동화/친구
	<p>사계절 옷은 코끼리 시리즈 16권. 유치원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을 현실감 있게 그려 내면서도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는 이야기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심리와 솔직한 태도를 생생하게 담았다. 티격태격하다가도 조금씩 친철헌,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건네며 '친구'가 되는 모습은 읽는 내내 미소를 자아낸다.</p> <p>오늘은 유치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일곱 살 여자아이 나조아가 유치원에 가는 첫날이기도 하다. 조아의 엄마는 회사에 다녀서, 조아 혼자 유치원 버스를 기다린다. 노랑 가방을 메고 노랑 유치원 옷을 입은 조아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소개할지 연습 중이다. 처음엔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웃을지도 모르지만, 조아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다.</p> <p>뒤에 몇 명이나 서 있나 궁금해서 조아가 뒤돌아본 사이, 앞에 웬 남자아이가 와서 서 있다. 딱 봐도 새치기가 분명한데, 남자아이는 자기가 더 빨리 왔다고 큰소리치고는 까불지 말라며 조아의 다리를 툭 걷어챈다. 시무룩해진 조아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유치원으로 달려간다. 조아 눈에 비친 교실 안은 괴물 같은 녀석을 만난 버스와는 전혀 다른 세계다.</p> <p>동화 속 공주님처럼 예쁜 선생님이 조아를 반겨 주고, '금동희'라는 이름의 과마머리 여자아이는 상냥하게 말을 건네며 블록 놀이를 함께하자고 한다. 좋지 않은 기분이 풀어지고 조아 얼굴에 미소가 어릴 찰나, 어디선가 수상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아침에 조아를 건드린 바로 그 녀석인데...</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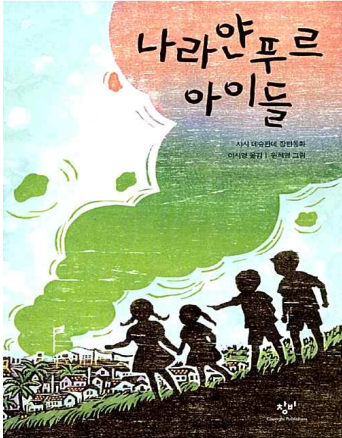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존 버닝햄	그림책/인권
	<p>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공동으로 출판하는 책. 세계인권선언 30개 항목을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인권'이라는 것이 나와 내 주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 권리이자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초적인 것임을 일깨우고자 했다.</p> <p>법조문처럼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30개 항목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공동 작업으로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다듬고, 각 조항을 쉽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풀어냈다. 각 조항마다 그려진 그림은 표지를 그린 피터 시스를 비롯,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다.</p> <p>특히 영미권을 넘어서 아프리카와 남미, 일본 등 전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작가들을 아우르고 있어 각 나라의 독특한 그림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는 미술대중화운동에 힘써온 우리나라 홍성담 작가의 동양적인 색채의 그림도 포함된다. 책에 실린 그림의 인세는 전액 국제앰네스티에 기부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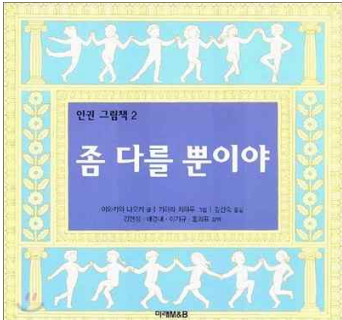
사라, 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	그림책/평등
	<p>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촉발점이 된 로사 파크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분리하되 동등하다'는 흑인 차별법에 따라 흑인과 백인이 버스에서부터 화장실, 도서관, 교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자리까지 구분되어 있는 현실에 항거한 소녀 사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p> <p>매일 사라와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흑인은 버스 뒤쪽에, 백인은 버스 앞쪽에 타야한다는 법 때문에 사라와 엄마는 한 번도 버스 앞쪽에 탄 적이 없다. 버스 앞이 어떤지 궁금했던 사라는 어느 날 버스 앞쪽으로 간다. 그런 사라를 보고, 버스 운전사는 뒤쪽으로 가라고 명령한다.</p> <p>직감적으로 그 법이 옳지 않다고 깨달은 사라는 운전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소동 끝에 사라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다. 그리고, 어린 소녀 사라의 용기에 자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법을 바꾸기 위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한다.</p> <p>실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5년 12월 로사 파크스는 42세의 흑인 여성이 미국의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체포된다. 백인 승객에게 자리 양보하기를 거부해 법을 어겼다는 것. 이 사건으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고, 1년 후 버스에서의 흑백 차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이 운동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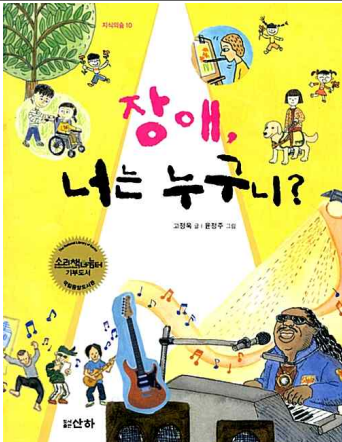
아픈 바다	엄정원	그림책/환경
	<p>느림보 그림책 시리즈 33권. 일러스트레이터 엄정원의 첫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충격적인 환경 재난의 시대를 바라본다. 죽어 가는 검은 바다와 섬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방사능 유출로 지금껏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후쿠시마를 떠올리게 한다. 목탄을 짓이기듯 손으로 문질러 표현한 역동적인 바다는 아이의 슬픔과 절망을 강렬하게 전달한다.</p> <p>바다가 오염되자 어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섬을 떠난다. 한때는 활기 넘치는 섬이었지만 이제 엄마와 아이들만 쓸쓸히 남아 아빠가 데리러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기다림에 지친 아이가 목 놓아 아빠를 부르자 그 간절한 마음을 아는 듯 바다도 숨을 죽인다. 결국 마지막 남은 바다 새까지 멀리 떠나고, 텅 빈 바닷가에는 슬픔에 빠진 아이만 홀로 서 있는데...</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성냥팔이 소녀	안데르센	동화/평등
	<p>도서출판 더클래식은 일찍이 고전의 가치를 깨닫고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작품들을 출간해왔다. '더클래식 세계문학 컬렉션'은 고전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작품들을 모았다. 고전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만 읽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다.</p> <p>'더클래식 세계문학 컬렉션'은 단순히 원문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번역이 아니라 본래의 원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말과 글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했다. 고전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독자에게 다양한 감동과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더클래식 세계문학 컬렉션'은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빛나는 고전의 가치를 느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p> <p>《성냥팔이 소녀》에는 안데르센이 남긴 160여 편의 작품 중에서도 명작인 작품을 엄선했다. 가난과 추위에 떨며 성냥을 팔던 소녀 〈성냥팔이 소녀〉, '죽음'에게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어머니 이야기〉, 다른 오리들과는 달리 생긴 오리인〈미운 오리 새끼〉등 총 열 편의 명작을 담았다. 안데르센의 대표작을 묶은 《성냥팔이 소녀》를 통해 현실을 바탕으로 한 환상 세계를 경험하는 동시에 안데르센이 전하는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안돼! NO!	데이비드 맥페일	그림책/인권
	<p>도서출판 더클래식은 일찍이 고전의 가치를 깨닫고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작품들을 출간해왔다. '더클래식 세계문학 컬렉션'은 고전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작품들을 모았다. 고전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만 읽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다.</p> <p>'더클래식 세계문학 컬렉션'은 단순히 원문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번역이 아니라 본래의 원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말과 글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했다. 고전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독자에게 다양한 감동과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더클래식 세계문학 컬렉션'은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빛나는 고전의 가치를 느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p> <p>《성냥팔이 소녀》에는 안데르센이 남긴 160여 편의 작품 중에서도 명작인 작품을 엄선했다. 가난과 추위에 떨며 성냥을 팔던 소녀 〈성냥팔이 소녀〉, '죽음'에게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어머니 이야기〉, 다른 오리들과는 달리 생긴 오리인〈미운 오리 새끼〉등 총 열 편의 명작을 담았다. 안데르센의 대표작을 묶은 《성냥팔이 소녀》를 통해 현실을 바탕으로 한 환상 세계를 경험하는 동시에 안데르센이 전하는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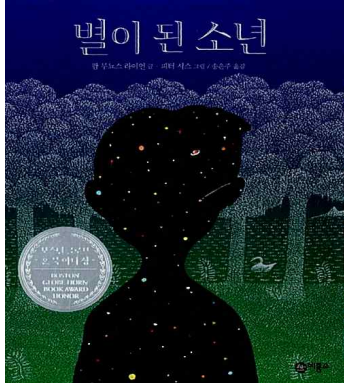
나라안푸르 아이들	샤시 대슈판데	동화/평화
	<p>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절, 보통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과 그들의 독립 운동을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 동화이다. 어린이들의 천진한 장난에 흥분한 경찰이 마을 전체에 총탄을 발포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p> <p>역사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그려가는 역사의 거대한 걸개그림을 보여준다. 간디나 네루 같은 인사가 아니라, 한 시골 마을의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들을 지키는 어른들이 주인공이다.</p> <p>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하인들이 터번 속에 간디의 연설문을 숨기고, 무력시위로 쫓기는 젊은이들을 숨겨 준다. 개인의 삶이 역사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채워가는 역사가 얼마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는지 보여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좀 다를 뿐이야	이와카와 나오키	그림책/인권
	<p>소중한 나, 소중한 너 그리고 소중한 우리.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인권 그림책 시리즈. 가장 먼저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인권을 알기 쉽게 풀어نا간다.</p> <p>인권의 기본 개념과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권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1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를 찾기, 2권은 '다름'을 인정하기, 3권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권을 통해 인권 알기, 4권은 아이들이 펼쳐나가는 인권 이야기, 5권은 역사 속 사건으로 훑어보는 세계 인권의 발전사로 구성되어 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장애, 너는 누구니?	고정욱	동화/장애인권
	<p>산하 지식의숲 시리즈 10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애를 대표적인 10개 유형으로 가르고, 각 꼭지마다 15매 안팎의 동화를 구성했다. 꼭지마다 동화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식 정보가 시작된다. 먼저 각각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고, 앞의 동화의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풀었다. 그리고 해당 장애의 특징이나 치료법, 기구 등을 다루었다.</p> <p>역경을 딛고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실었고, 장애인인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가질 수 있는 직업 등을 소개한다. 또한 각각의 장애를 다룬 책이나 영화, 이들을 위한 단체도 다루었다. 독자들이 장애 문제를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구성하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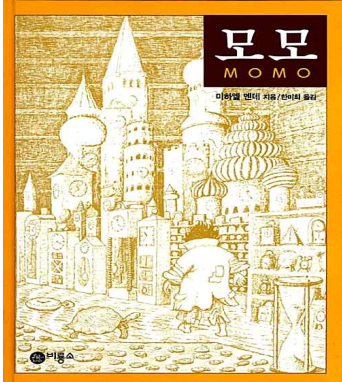
나랑 달라도 사랑해	미셸 도프렌	동화/인권
	<p>깃털 색깔이 독특한 암탉 이루미는 뾰족한 부리로 달걀돌리기를 할 줄 알고, 춤도 멋있게 추는 등 다른 닭들에 비해 재주도 많고 행동도 범상치 않다. 평범한 암탉들은 특별한 이루미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들의 따돌림과 수거위와 수탉들의 괴롭힘을 피해 이루미는 할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멀리 떠난다.</p> <p>이루미의 단적인 파란 오리는 이루미와 함께 길을 떠난다. 갈 곳 없어 힘들어 하는 이루미와 파란 오리에게 하얀 수탉 힘찬이가 다가와 자기가 사는 데로 데려 간다. 하지만 힘찬이가 데려 간 닭장 역시 하얀색 닭들만 있어 더욱 따돌림을 당한다.</p> <p>자기와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포용하고 다양성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동화이다. 타문화와 타인종에 대한 관용과 관심, 융화가 필요한 시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점은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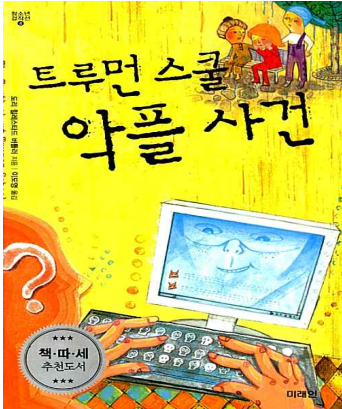
슬픈 거짓말	김남길 외	동화/인권
	<p>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힘없는 자들의 인권은 유린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애우, 여성, 노인,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 통일, 성폭력 등을 소재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를 담아냈다.</p> <p>일곱 편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게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길러 주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것.</p> <p>낯설게만 느껴지는 인권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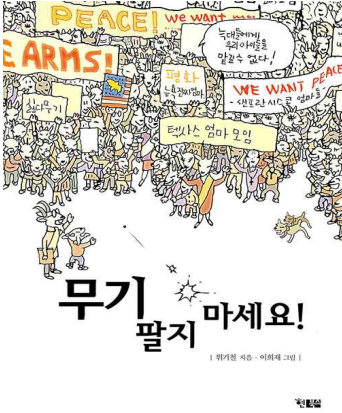
별이 된 소년	팜 무뇨스 라이언	동화/성장
	<p>비룡소 걸작선 시리즈 19권. 197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어린 시절을 다룬 동화이다. 이 작품은 “글과 그림의 절묘한 결합. 마술적 사실주의를 아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2010년 보스턴 글로브 훈 북 아너 상을 수상했다.</p> <p>저자는 네루다의 에세이 「어린 시절과 시」에 실린, 담장에 뚫린 구멍으로 솔방울과 양을 주고받았던 어린 시절 일화를 읽고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는 회고록과 시들에 담긴 네루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의 불화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는 어린 시인의 성장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냈다.</p> <p>칠레 국경 지대의 한 마을, 네프탈리 레예스는 몸이 허약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언어에 대한 감수성과 호기심으로 늘 세상을 탐험하길 꿈꾼다. 하지만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는 책임기와 글쓰기에 대한 아들의 열망을 ‘쓸도없는 일’로 치부하고, 늘 공상에 빠진다고 하여 ‘덜떨어진 아이’로 여긴다.</p> <p>네프탈리가 자라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부자 사이에는 실망과 애증이 자리 한다. 네프탈리는 자신을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는 새어머니와 삼촌, 여동생과 형의 사랑 속에서 그만의 감성을 키워 나가며 결국 ‘파블로 네루다’라는 필명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하는데...</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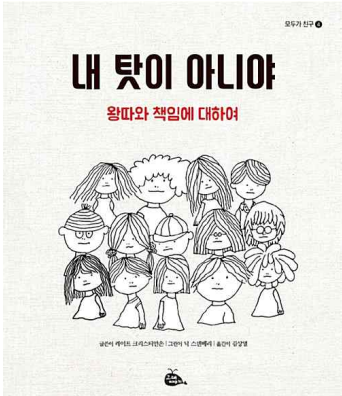
못생긴 호박의 꿈	삼형제	그림책/인권
	<p>텃밭에서 펼쳐지는 못생긴 호박의 성장과 좌절 그리고 꿈의 이야기를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림으로 담아내었다. 아름다운 텃밭의 사계절과 함께하는 못생긴 호박의 이야기는 저마다 조금씩 못난 모습을 가졌지만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p> <p>너른 텃밭에서 통실하게 자라나는 수박과 참외 그리고 다른 호박들과 달리, 텃밭 구석진 가시덤불 속에서 태어난 아기 호박. 다른 동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마저도 외면당하며, 맘속 외로움은 커져만 간다. 텃밭을 드나드는 할머니 또한 외면만 한다.</p> <p>할머니는 정말 가시덤불 아래 호박을 보지 못했을까? 서운한 맘속에서도 할머니를 향한 호박의 그리움은 쌓여만 간다. 호박의 꿈은 끝내 이뤄질 수 있을까?</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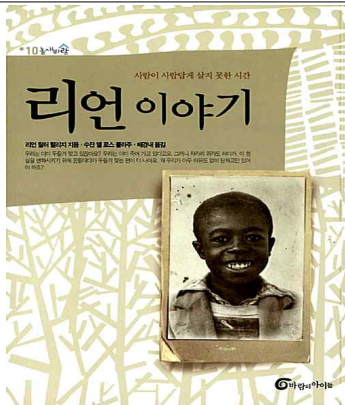
세계 어린이 인권여행	아렌트 판 담	유엔아동권리협약
	<p>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40개 조항을 세계 어린이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과 연결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 아렌트 판 담은 직접 세계 여행을 하며 보고 들은 세계 어린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 책을 통해 펼쳐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어린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p> <p>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국가 차원의 가난, 열악한 자연 환경에 따른 질병, 이념 대립에 의한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땅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가정의 붕괴, 유해한 정보와 문화의 공격, 각종 국가 정책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p> <p>40가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마주하다 보면, 나라마다 다른 자연환경, 경제적 수준, 이념, 문화 등을 뛰어넘어서 어린이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며, 당당하게 주장하고 누려야 하는 공통된 권리에 대해 자연스레 눈을 뜨게 된다. 또한 어른들은 이 책을 통해 어린이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게 될 것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모모	미하엘 엔데	동화/친구
	<p>사람들에게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주는 시간을 빼앗아간 회색 신사들과 여자 아이 모모, 호라 박사 등이 벌이는 모험을 다룬 소설. 꿈 속에서 벌어질 법한 갖은 이야기들이 줄줄이 펼쳐진다. '시간은 살고 싶은 우리 마음 속에 깃들여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이 책 읽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삽화를 되도록 쓰지 않고 편집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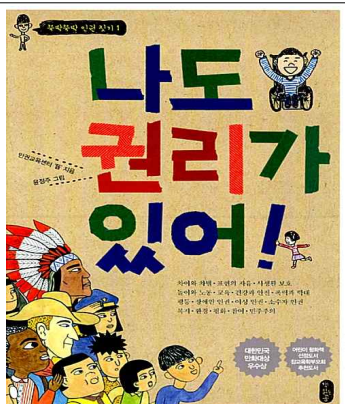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베틀러	소설/평화
	<p>사이버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을 섬세한 터치로 날날이 그려냄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읽고 공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끄는 소설. 어느 날 익명의 누군가가 교내 인기 여학생인 릴리를 포함하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트루먼 중학교의 악플 사건은 시작된다.</p> <p>정체 모를 악플의 영향은 일파만파 번져 릴리는 점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 급기야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 릴리가 가출을 저지르면서 학교는 발칵 뒤집힌다. 악플을 단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추리소설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p> <p>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짜 소중한 체험은, 피해자와 그 주변 친구들, 그리고 가해자 모두의 입을 통해 사건에 휘말린 청소년 자신의 생생한 생각과 감정을 엿보는 것이다. 즉,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어떻게 다른 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지를 피부에 와 닿도록 일깨워주는 소설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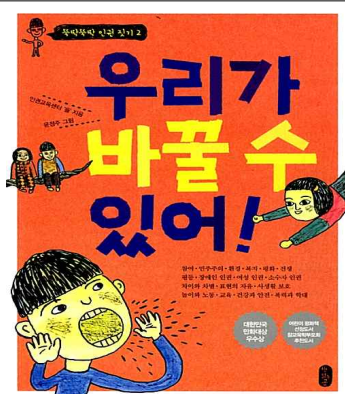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동화/평화
	<p>어느 날, 교실로 들어서던 보미는 경민이가 장난감 총으로 쏜 비비탄을 얼굴에 맞는다. 보미는 항의하지만, 경민이를 비롯한 남자아이들은 막무가내다. 보미는 '평화 모임'을 만들고, 선생님 허락을 받아 학교에 '장난감 무기 수거함'을 설치한다.</p> <p>보미와 평화 모임 친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얻어, 나중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 문방구를 돌며 장난감 무기를 팔지 말라는 시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보미의 행동은 신문에 실려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경민이와 다른 남자아이들도 뜻을 함께해 '평화 모임' 홈페이지까지 만들게 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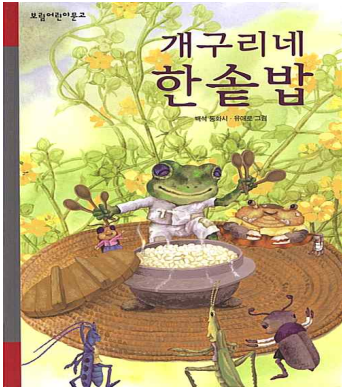
내 탓이 아니야	레이프 크리스티안손	그림책/인권
	<p>왕따 문제를 소재로 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책, <내 탓이 아니야>가 새롭게 출간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전쟁과 환경 파괴, 성차별, 장애인 인권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지만 일회적인 관심뿐이고 곧 잊히고 만다. <내 탓이 아니야>는 그러한 문제들에서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왕따 문제'를 소재로 하여 회피하고 숨기고 모르는 척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책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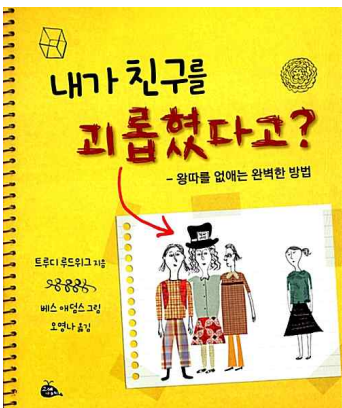
리언 이야기	리언 월터 릴리지	동화/평등
	<p>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인권과 차별, 자신의 지난 날을 들려주는 리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책이다. 수잔 엘 로스는 리언 할아버지와 인터뷰,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다니며 모은 이야기들을 콜라주 기법으로 합쳐 흑인의 삶을 진솔하게 담았다.</p> <p>자유 민주국가라는 미국이 벌인 인종 차별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70여 년 전의 미국 사회, 그리고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변화된 세대가 짧은 이야기 안에서 충돌한다. 좀더 나은 삶을 위한 문제 의식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고민을 던져 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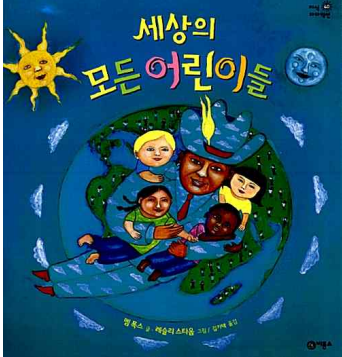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그림책/친구
	<p>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라면을 먹는 주인공과 그 친구들, 이어서 얼굴을 모르는 이웃마을 아이들, 나아가 이웃나라 아이들까지 그들의 일상을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시작하여,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동까지 이르며 보여 주는 아이들의 생활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과 안쓰러움과 슬픔을 자아낸다.</p> <p>세상의 아이들이 모두 우리처럼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들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보여 주는 평화 그림책이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한' 그림책이기도 하다. 2008년 제13회 일본그림책상을 수상했고, '이 그림책이 좋아' 2008년 일본그림책부문 2위에 선정된 작품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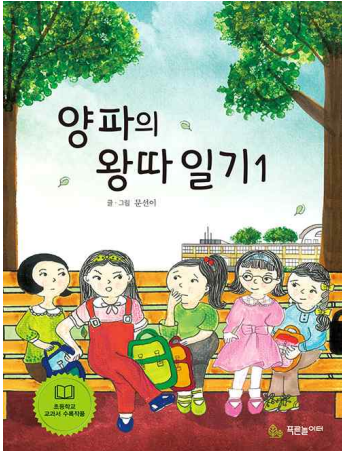
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교재/인권
	<p>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참교육 학부포회 추천도서, 어린이 평화책 선정도서. 2005년 출간된 <똑딱똑딱 인권 짓기>의 개정판으로,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의 창간호부터 연재되었던 '똑딱똑딱 인권 짓기'를 엮은 책이다. 그간 사회 분위기나 정서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듬어 새롭게 펴냈다.</p> <p>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어린이와 어른, 여자와 남자,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가지는 권리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타고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며 살고 있을까?</p> <p>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을 길러 내고, 나아가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인권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 책은 '나'와 '우리'의 권리를 알려주는 어린이를 위한 인권 교과서다. 알고 있지만 채 깨닫지 못하는 인권 의식을 이 책을 통해 환기하고, 나와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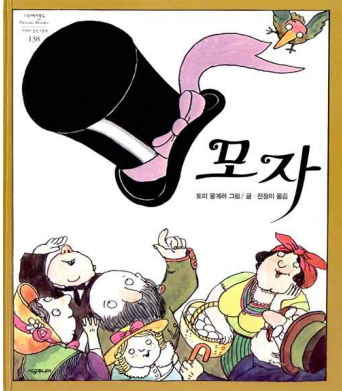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교재/인권
	<p>똑딱똑딱 인권 짓기 시리즈 2권.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면서 쌓아온 인권 이야기를 친절하고도 섬세한 글로 하나하나 풀어 간다. 책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뒤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책 곳곳에 자기 생각을 적는 빈칸과 고민 나눔터도 마련해 두었다.</p> <p>먼저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인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이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회 이야기로 시작하여,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 준다. 다음으로는 오늘날과 미래 사회의 중점 과제인 환경 문제를 다룬다.</p> <p>그 밖에도 주거 환경이나 학교 급식 등에 관련된 사회 복지 문제, 인간의 삶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해 버리는 전쟁과 평화 문제, 상하 관계의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평등권 문제, 여전히 사회에 당당히 나설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한구석에 머물러 있기만을 강요당하는 장애인 인권 문제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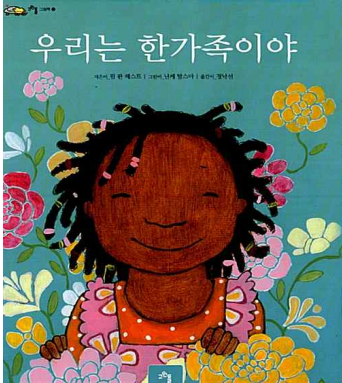
개구리네 한술밥	백석	그림책/공동체
	<p>우리 민족의 토속적 정서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했던 월북 시인 백석. 어린이에게는 산문보다 시가 더 적당하다는 생각으로, 운율이 있는 시의 형식에 이야기를 담은 '동화시'를 많이 쓴 작가이기도 하다.</p> <p>백석이 쓴 동화시 '개구리네 한술밥'을 그림동화로 만들었다. 시로 이루어진 만큼 리듬감 있는 문장이 읽는 내내 마음에 착착 와 감긴다. 개구리가 겪는 사건 하나하나가 똑같은 어구의 시구들로 이루어져, 내용을 바꾸며 진행되는 돌림노래와 같은 느낌을 준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절정과 결말을 향해 발전되어 나가며, 읽는 이의 기분을 천천히 끌어올려 주기도 한다.</p> <p>낮익지는 않지만 그 느낌만은 살아있는 옛말을 읽는 재미도 살아있다. '넙름 뛰어', '개구리는 뿌구국 물어보았네'와 같은 표현이 그렇다.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는 따뜻한 마음을 그린 주제의식도 정겹다.</p> <p>이런 정겨운 이야기에 걸맞게 그림 또한 다정하다. <갯벌이 좋아요>, <반짝반짝 반디각시>를 그렸던 그림책 작가 유애로는 동그란 선들을 살려 등장인물들을 정감있게 표현하였다. 한 장을 뜯어 그대로 그림엽서로 쓰고픈 충동마저 불러 일으키는 예쁜 그림동화책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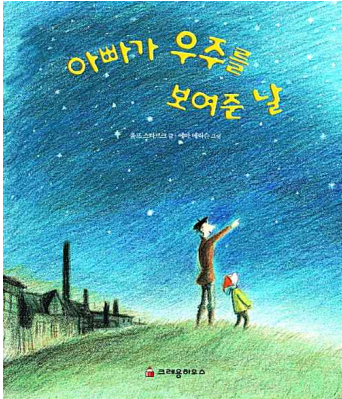
내가 친구를 괴롭혔다고?	트루디 루드윅	학습서/인권
	<p>왕따 가해자가 들려주는 왕따에 대한 이야기이다. 피해자 입장이거나 관찰자 입장에서 쓴 왕따에 대한 책들과는 달리, 가해자 입장에서 썼기에 왕따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은 매우 실제적이다.</p> <p>왕따 가해자인 케이티는 어느 날 교장실로 불려간다.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본 다른 친구들이 이를 학교에 알린 것이다. 케이티는 친구를 때린 것도 아닌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케이티는 상담 선생님에게 왕따에 대한 특별 수업을 받게 된다.</p> <p>상담 선생님께서부터 왕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만능 도구들'의 사용법을 배우게 된 케이티.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게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쓴 일기장을 공개한다.</p> <p>왕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누구나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익한 책이며, 동시에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실용적인 책이다. 또한 바람직한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 주는 '우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하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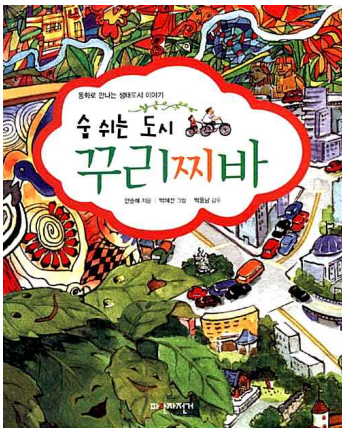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멤 폭스	학습동화/다문화
	<p>지식 다다익선 시리즈 40권.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린이 책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멤 폭스의 평등과 평화에 관한 그림책이다. 인종, 성별, 국가,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러한 평등의 가치를 통해 인류애와 박애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간결하고 리드미컬한 문장과 따뜻한 그림 속에 담아냈다.</p> <p>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민족, 성, 사회 계층, 삶의 방식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딱딱하고 어려운 사전적 정의를 강요하는 대신, 아이들이 익숙한 단어들을 활용한 글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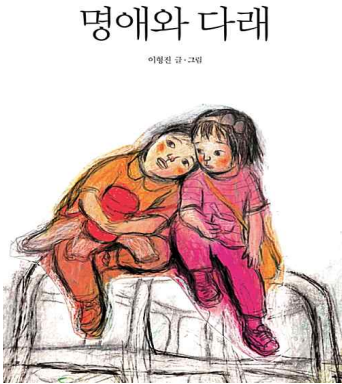
양파의 왕따 일기1.2	문선이	동화/인권
	<p>어린 친구들이 읽고 재독 삼독하며 친구나 부모님께 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약 20년간 스테디 셀러로 자리매김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문선이 작가는 첫 작품 집필 전에 좋은 문학 작품은 감동(느낌)과 재미는 기본이지만 동화는 특히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비로소 성공한 작품이 된다고 생각했다.</p> <p>어린이의 특성상 어른들이 보아 아무리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해도 거기에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어낼 수 없기에 내 책을 어린 친구들이 한 번 잠으면 신나게 놀이처럼 끝까지 빠져들게 하는 글을 쓰자고 결심했다. 동화에 감동 느낌은 있지만 흥미가 빠진 것은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p> <p>정화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첫눈에 사귀고 싶은 친구로 미회를 점찍었다. 하지만 유행을 선도하며 반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양미화와는 친구가 되기 힘들 듯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양파에 합류하게 된 정화. 양파 아이들과 인기 최고인 미화가 결성한 '양파'.</p> <p>양파는 모두가 합류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어울리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 급기야 정선이가 따돌림으로 전학을 가게 되자 충격과 갈등에 휩싸인다. 정화는 이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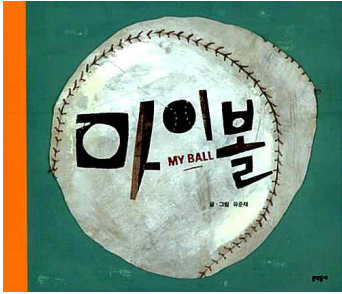
모자	토미 웅거러	그림책
	<p><크리터>, <세 강도>를 지었던 토미 웅거러의 그림책. 재치있는 발상에 감탄하며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p> <p>주인공은 연분홍색 리본이 달린 번드르르한 모자 하나. 어느 부자의 머리 위에서 행복하게 살던 이 모자가 어느 날 바람에 날아간다. 그리하여 정착한 곳은 가난하고 불쌍한 늙은 병사 바도글리오의 대머리. 마음 약한 바도글리오는 모자가 날아와 앉은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지만 곧 신나는 일이 마구 생겨난다. 이 모자는 (주인공답게)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다.</p> <p>모자는 혼자 날아가 떨어지는 화분을 받아내는가 하면, 도망간 새를 잡아오고, 유모차에 난 불을 꺼뜨려 주기도 한다. 바도글리오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추태한 병사에서 은바퀴가 달린 다리를 한 멋진 신사로 탈바꿈한다.</p> <p>구석구석 숨어있는 지은이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책장을 덮은 후에도 뭔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열린 결말 역시 빼놓을 수 없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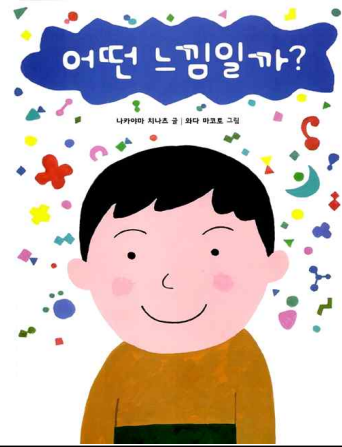
우리는 한가족이야	핍 판 헤스트	그림책/가족
	<p>고인돌 그림책 시리즈 12권. 저자가 입양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그림책이다. 가슴으로 넣은 입양 소녀의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야기를 통해 입양이란 슬픈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또 다른 부모님을 만나는 축복 받은 일이라고 일깨워 준다.</p> <p>엄마, 아빠, 로지타는 한 식구예요. 하지만 좀 이상해요. 엄마 아빠는 피부가 하얀데, 로지타의 피부는 갈색이거든요. 로지타는 엄마 아빠랑 피부색깔이 다른 게 그리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로지타를 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p> <p>로지타는 부모님 품에서 티 없이 밝고 건강하게 크다가 엄마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큰 슬픔에 빠져요. 엄마, 아빠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낳아준 부모와 입양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데...</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	울프 스타르크	그림책/가족
	<p>아빠는 아이가 이제 우주를 보러 가도 될 만큼 컸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밤하늘 별들이 한눈에 보이는 너른 들판으로 데리고 간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아빠는 별들의 이름을 알려 주지만 아이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수많은 별들이 유리창으로 햇빛이 비추는 때 보이는 작은 먼지처럼 보일 뿐이다.</p> <p>아빠는 우주는 정말 넓고 그 우주를 보고 있으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아이는 아빠처럼 이런 마음을 느끼기엔 어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빠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아 더욱 읽는 기쁨을 주고 파스텔과 색연필로 부드럽게 그려진 그림은 아빠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펼쳐진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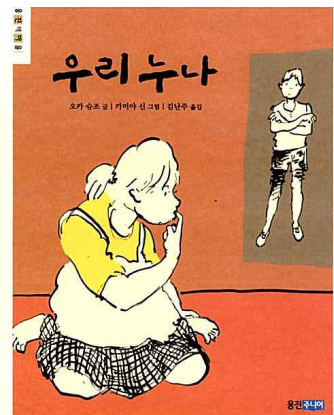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안순혜	논픽션/환경
	<p>과거의 문화 유산과 현재의 생활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자연과 인간이 사이좋게 어우러지는 도시. 브라질에 있는 꾸리찌바가 바로 그런 도시다. 30년 가까이 노력해서 제3세계의 가난한 지방 도시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생태도시로 탈바꿈한 꾸리찌바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도시의 구성구석을 담았다.</p> <p>환이는 도시계획가인 아빠에게 '꾸리찌바'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공원을 거닐며 마음껏 푸르름을 즐기는 사람들, 주말이면 무료로 사람들을 공원까지 실어다 주는 녹색 버스가 있는 그곳으로 환이와 아빠는 여행을 떠난다. 깨끗한 공기, 도시 한 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강물,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거리, 알록달록한 온갖 꽃들과 길게 늘어진 나무들, 군데군데 마련된 벤치. 환이는 꾸리찌바에 한 눈에 반한다.</p> <p>아빠는 그런 환이에게 꾸리찌바가 어떻게 오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나무 보호 정책을 만들어, 사람들이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고, 꽃과 나무를 많이 기르는 마을에는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주었다. 또, 재활용을 통해 자연환경뿐 아니라, 음악, 미술, 연극, 건축을 모두 포함한 종합 예술 도시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p> <p>꾸리찌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도시이다. 그 비결은 바로 사람과 환경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모두 다 그렇다. 꾸리찌바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발 붙이지 못하고,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진다. 꾸리찌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기가 사는 곳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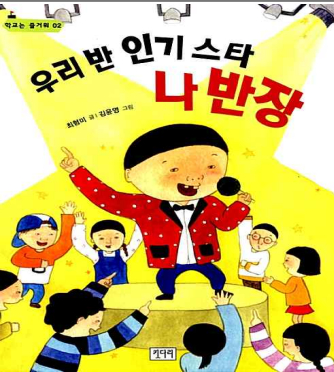
명애와 다래	이형진	그림책/가족
 <p>명애와 다래 이형진 글·그림</p>	<p>다래네 할머니는 늘 누워만 지내신다. 다래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할머니 걱정만 하는 아빠, 엄마에게 화를 내다 잠이 든다.</p> <p>그런데 이게 웬일! 할머니가 다래와 둘이서 놀이공원에 가자시는 게 아닌가. 게다가 할머니는 자꾸만 젊어지고,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다래보다 더 작은 어린 아이가 된다.</p> <p>제목에 등장하는 '명애'가 바로 할머니의 이름.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을 판타지로 그려낸 그림책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마이볼	유준재	그림책/가족
 <p>마이볼 MY BALL 유준재 글·그림</p>	<p>유준재 화가가 쓰고 그린 첫 번째 창작그림책으로, 야구로 아버지와 소통하고 값진 시간을 간직할 수 있었던 화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야구 배트와 김정색 미즈노 글러브를 아버지에게서 선물 받은 날로부터 1982년 프로야구가 탄생하던 해를 지나 어른이 되기까지, 작가가 아버지와 함께 나눈 야구에 얹힌 추억이자 작가의 가슴에서 싹터 무르익어온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담은 책이다.</p> <p>[우주소년 아톰]보다 아버지와 야구 중계 보는 게 더 좋았고 빨강 줄무늬 야구 유니폼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 친절한 아이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아이는 깨닫는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단순히 야구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자세였으며, 야구가 펼쳐 보여준 것은 아버지의 배려이자 앞으로 펼쳐질 제 몫의 삶에 대한 응원이었다는 것을.</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그림책/장애인권
 <p>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글 최다 미코토 그림</p>	<p>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책이다. 장애는 그저 괴롭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며, 보지 못할 때, 들리지 않을 때 열리는 더 풍요로운 감각의 세상이 있고, 누구나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남과는 다른 능력이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우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장애 체험과도 맥이 닿아 있다.</p> <p>주인공 아이가 혼자 하는 생각과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세세한 배경 표현 없이 맛있게 보이는 그림이지만, 정면을 바라보는 인물들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참신한 기법들이 들여다볼수록 눈길을 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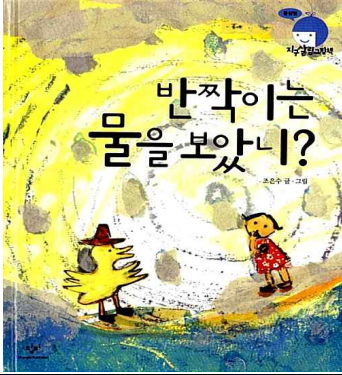
우리는 친구	다니카와 순타로	동화/친구
 <p>우리는 친구 다니카와 순타로 글 윌리엄 미코토 그림 김 숙 옮김</p>	<p>아이들은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책처럼 말이다. '친구'라는 백이면 백 사람이 다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다. '친구란 감기가 유행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혹은 '친구란 집에 갈 때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친구의 정의와 친구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림책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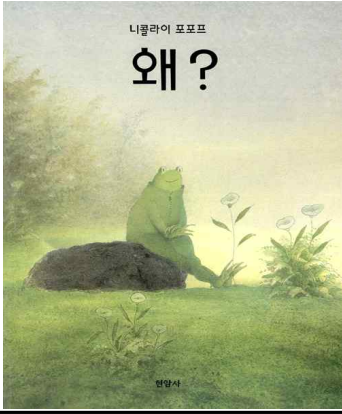
우리 누나	오카 슈조	동화/장애인권
	<p>"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이들이 타인의 아픔을 아는 진정한 '인간'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단편집. 여섯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들과 정상적인(아니, 사실은 편의대로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려냈다.</p> <p>이미 사회에 길들여진 어른들은 장애인을 드러내놓고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규율에 묶이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과 모습이나 행동이 다른 아이들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반대로 한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곤 한다. 이 책은 그 양면에서 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며 솔직한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한다.</p> <p>줄거리만으로는 다소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운증후군 누나가 있는 아이에게 생긴 일상의 작은 행복, 학교 길에 만나는 다리 저는 아이를 괴롭혔던 한 아이의 고백,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다른 장애아를 괴롭히는 절실한 이야기 등.</p> <p>그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엮어낸 솜씨 덕분에 이 책은 장애아를 다룬 많은 책들 사이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한다. 하나의 주제가 여러 모양의 물결로 번주곡 같이 울려 퍼져, 주제는 더욱 선명해지고, 각각의 감동은 저마다의 색깔을 띤다. 무심하게 전개되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감동을 '팍' 터뜨리는 작가의 이야기 솜씨도 대단하다.</p> <p>일본에서 '아동문학자협회 신인상', '아카기토리사시 그림상' 등 여러가지 상을 받은 책이다. 장애아 학교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작가의 이해가 이야기의 사실성에 힘을 보태준다. 하지만 이 책에서 무엇보다 값진 것은 '사람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려는 작가의 진정성이다. - 이예린(2002-10-18)</p>	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


우리반 인기스타 나반장	이기규	동화/학교생활
	<p>학교는 즐거워 시리즈 2권.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어린이들의 고민과 학교생활을 잘하고 싶은 어린이의 속마음을 들여다 본 동화이다. 2학기가 되고 반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는 친구로 뽑을 '반장'이 되기 위한 인기비결을 찾아가는 나반장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친구에 대한 진심'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p> <p>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동화를 통해 소개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교생활로 포장된 창작동화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면서 이야기 속에서 함께 움직이도록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p>	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


안녕, 친구야	강풀	그림책/친구
	<p><순정만화>, <아파트> 등의 감성만화로 어른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던 강풀이 아빠로서 그리고 그림책 작가로서 선보이는 첫 그림책.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과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책 안에 자연스럽게 담았으며, 그림 스타일에서도 기존 만화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되, 마치 아이와 고양이와 함께 길을 걷는 듯 장면을 분할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p> <p>함박눈이 내리는 밤, 혼자 자다가 잠이 깬 아이는 안방으로 가다 문지방에 발이 쪼여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그만 울라고 누군가 말을 했지요. 바로 아기고양이였습니다...</p>	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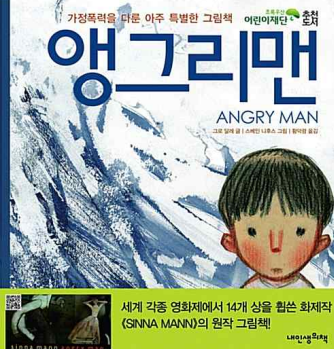
테일이	박태옥	만화/노동인권
	<p>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과 전태일 수기 모음집인 <내 죽음을 헤투이 팔라>에 기초하여 전태일의 삶을 만화로 살려 내었다. 이 저본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위해 전태일의 어린 시절과 시대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족과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p> <p>이 만화는 전태일 분신 37주기를 맞아 그간 그의 평전과 수기,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회상록 등을 출간해온 돌베개에서 나온 것으로, 만화가 최호철이 스무 살때 <전태일 평전>을 읽고 20여 년을 기다려 만화로 재탄생했다. 전체 5권으로 완간 되었다.</p> <p>1권에서 소년 전태일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지만, 열심히 일해도 몸만 상하고 돈은 벌지 못한 채 가솔을 했다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p> <p>2권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 태일의 열망과 사업을 중요시하는 아버지의 갈등이 펼쳐진다. 또 태일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회고되고 있는 청옥학교 시절이 그려진다.</p> <p>3권에서는 전태일이 평화시장에 발을 디디고 '시다' 일을 시작함으로써 겪게 되는 봉제공장 노동자의 삶을 보여 준다.</p> <p>4권에서는 재단사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 좌절하는 와중,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게 되고, 바보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p> <p>5권에서는 방황하던 태일이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 세상의 무관심과 싸우는 이야기가 펼쳐진다.</p>	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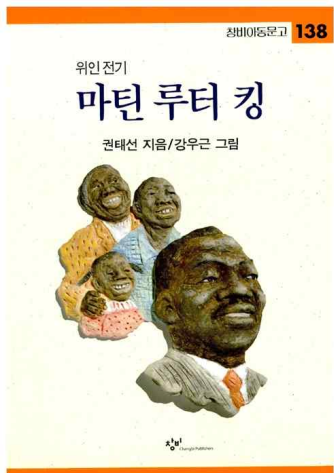
반짝이는 물을 보았니?	조은수	동화/환경
	<p>‘지구살림그림책’은 정보 나열식의 환경 책이 아닌, 어린이들의 마음에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한 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시리즈이다. ‘반짝이는 물을 보았니?’ 편에서는 아삭~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고이는 ‘사과’의 물에서 빗물, 강물로 넓혀 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구의 물’로 넘어간다. 사막화와 단개발, 과소비 등으로 인해 물이 부족해진 ‘지구의 모습’과 그 원인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대비시켜 보여주면서 ‘물’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p> <p>예쁜 것 사는 게 취미인 깔끔쟁이 여자아이 ‘왕소비’와 지혜롭고 재치 있는 ‘오리 농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만날 법한, 혹은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또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책 속 이야기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여기에 각권의 주제에 맞게 공거나 동물들을 서브 캐릭터로 설정,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에 재미 요소를 더하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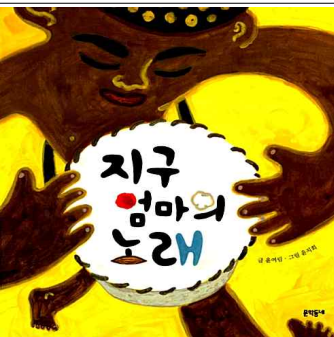
왜?	니콜라이 포포프	그림책/평화
	<p>너무나 사소한 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성 짙은 그림책이다. 전쟁의 무의미함과 어리석음을 그림만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글이 없어도 삽화만으로 충분히 전쟁의 무모함과 그 폐해를 사실적으로 담아 내고있다. - 아이북랜드 도서선정팀</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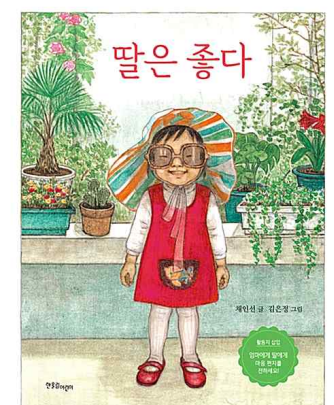
꼬마 독재자	권정생 외	동화/민주주의
	<p>주제별 동화선집 시리즈 1권. ‘주제별 동화선집’은 지난 80년 동안 창작된 우리나라 동화들 가운데 가장 좋은 동화만을 모아 10가지의 주제로 엮은 시리즈이다. 이 책에는 「명월산의 너구리」, 「두꺼비 황제」, 「꼬마 독재자」 등 9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각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민주주의의 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p> <p>민주주의의 의미를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잘못된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더불어 사는 참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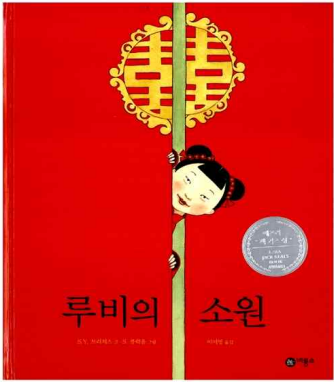
둥글둥글 지구촌 인권이야기	신재일	동화/인권, 평화
	<p>역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옛 선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p> <p>때로는 슬프고 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야기를 쫓다보면 옛날 계급으로 신분을 나눴던 시절부터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현재까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립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인권의 단면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들려 준다.</p> <p>민주주의와 비정규직, 빈곤층, 국가의 역할, 세계화, NGO의 역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인권과 관련된 수많은 지식 외에도, 아이들이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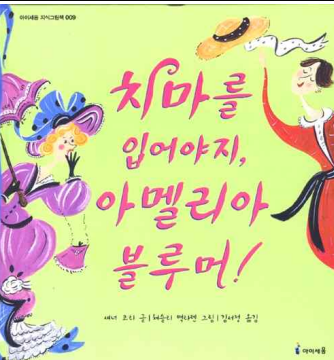
앵그리맨	그로 달레	그림책/가정폭력
	<p>내인생의책 그림책 시리즈 51권. 보이의 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집에 앵그리맨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앵그리맨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아빠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아빠의 몸을 비집고 튀어나온다. 앵그리맨은 상을 뒤엎고, 엄마를 밀치고, 집을 부순다. 그리고 보이가 숨어 있는 방으로도 성큼성큼 들어온다.</p> <p>보이와 엄마를 지켜 줄 사람은 여기 없다. 보이는 구석에서 귀를 막은 채, 앵그리맨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앵그리맨이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져도 보이는 안심할 수 없다. 보이는 어떻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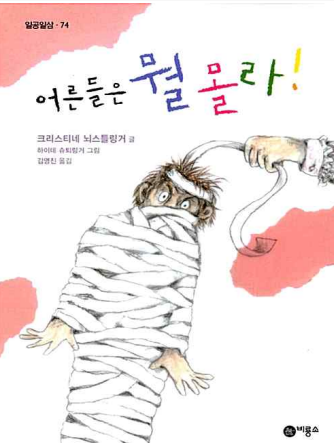
마틴 루터킹	권태선	인물/인권. 평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 못지않은 어엿한 사람 2. 어린 시절 3. 대학 시절 4. 정신의 지도자 5. 목사로서의 출발 6. 몽고메리에서의 첫 싸움 7. 버스 안 타기 운동 8. 현대의 모세 9. 자유 승차 운동 10. 어린이 십자군 11.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노벨 평화상 수상 13. 흑인 참정권 확대 운동 14. 시카고 빈민 운동 15. 베트남 전쟁 16. 다가오는 위험 17. 마침내 자유를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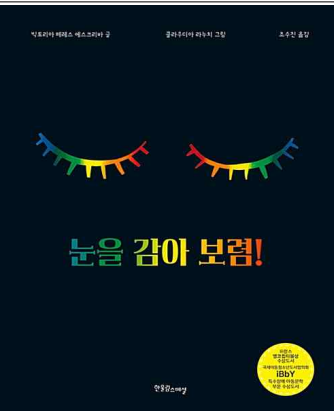
지구 엄마의 노래	윤여림	그림책/어린이노동
	<p>어른들의 침묵 속에 지속되는 지구의 불편한 진실을 임팩트 있는 그림과 짧은 노랫소리로 표현한 그림책이다. 작가 윤여림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이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고통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해도 되겠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그림책을 통해 간결하게 던진다.</p> <p>이것은 작가 스스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먼 옛날 지구를 낳은 지구 엄마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복을 두드리며 조용히 지구 엄마의 마음을 노래하는 한 아이의 '뚝뚝 뚝뚝' 노랫소리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반성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노래가 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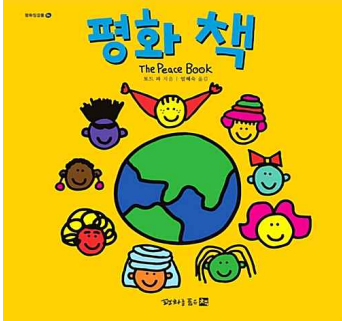
딸은 좋다	채인선	동화/공감
	<p>엄마만 느낄 수 있는 딸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야기. 딸은 크면 엄마와 친구가 된다고들 한다. 그만큼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지나간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딸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 역시 다름아닌 딸이었으니까. 세상에 태어난 여자로서, 딸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책.</p> <p>배경은 딸이 처음 태어난 70년대 초부터 그 딸이 성장하여 다시 아기를 낳는 현재까지이다. 본문의 끝에 딸이 아기를 낳기 직전 사진첩을 보며 끝을 맺지만 뒤표지의 아기를 낳고 있는 모습은 딸을 낳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엄마가 딸을 이해하고, 또 딸이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러한 순환 과정 때문이 아닐까?</p> <p>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첫 장면을 제외하고는 엄마의 얼굴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단서는 존재한다. 결혼식 장면에서는 엄마의 뒷모습만 나오지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눈물겨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장면장면의 상황과 배경, 소품, 분위기 등 글과 그림의 모든 곳에서 딸과 엄마의 감정선을 느낄 수 있게 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루비의 소원	S.Y 브리지스	반차별
	<p>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 봄이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한 여자 아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를 흐르는 따뜻한 애정과 '여자'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루비의 야무진 의지가 기억에 남는다.</p> <p>루비의 할아버지는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봄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다. 중국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커다란 집을 짓고 백 명이 넘는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여생을 보낸다. 할아버지의 손녀 루비는 시집보다는 좀더 공부하기를 위해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별난 아이이다.</p> <p>하지만 그 시대는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도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다. 루비의 할아버지 역시 루비가 시집을 가 좋은 아내와 좋은 업마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루비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할아버지는 루비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한다.</p> <p>동양적인 분위기를 잘 살린 그림책으로, 에스라 잭 키츠 상을 받았다. 짙은 빨강색의 표지가 강렬한 느낌을 주지만 책 내용은 잔잔하고 부드럽기 이를 데 없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새너 코리	반편견
	<p>1818년 뉴욕 호머에서 태어나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했던 아멜리아 블루머의 이야기를 자유분방한 그림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의 그림책으로 담아내었다.</p> <p>19세기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 드레스만이 여자들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복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드레스는 허리를 한껏 조이는 형태로 숨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게 만들었으며 여성의 몸에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속치마를 겹겹이 입어야 하고, 드레스의 무게만도 9~18 킬로그램이었다고.</p> <p>이런 상황에서 아멜리아 블루머는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다고 생각, 여성들의 투표권을 쟁취하려 했고, 스스로 신문을 만들었다. 어느 날, 아멜리아는 '리비'라는 여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옷을 발견하고, 가볍고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의 패션을 개발하지만 사람들은 그 옷을 조롱거리로 만드나.</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어른들은 뭘 몰라	크리스티네 너스틀링거	동화/공감
	<p>우리 엄마는 내가 어찌다 밥을 좀 덜 먹으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하느님 아버지 어제 난 욕실 거울을 박살 내 버렸어</p> <p>· · ·</p> <p>페터의 누나는 몸 냄새가 고약해 엄마가 같이 놀 수 있는 남동생을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빠의 새 부인에 대해</p> <p>웁긴이의 말</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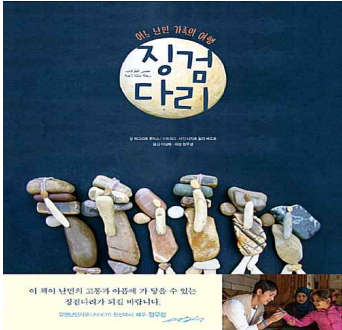
눈을 감아보렴	빅토리아페레스	그림책/장애인권
	<p>장애공감 그림책 7권. 제22회 프랑스 어린이문학상 앵크롭티블(Les Incorruptibles) 상 수상작. 2013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iBBY 특수장애 아동문학 부문 수상작. 시각장애를 가진 형과 동생이 바라보는 서로 다른 세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다.</p> <p><눈을 감아 보렴!>은 마음 따뜻한 한 아이가 시각장애를 가진 형에게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동생의 마음과는 달리 형이 바라보는 세상은 동생이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 그림책 속 동생과 형의 대화를 보며, 우리는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평화책	토드파	그림책/평화
	<p>평화징검돌 6권. 단어 그대로 '평화 책', 평화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이다. 굵은 윤곽선에 알록달록한 색을 써, 단순하면서도 친근하고 재치 있는 그림과 아이 눈높이에 맞는 짧으면서도 간단한 글로 '평화'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수긍할 정도의 세심한 통찰을 갖추었다.</p> <p>저자 토드 파는 일찍이 미국 애니메이션 쇼인 '토드 월드'(Todd World)로 에미 상 수상자 후보로 올랐다. 책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대중들로부터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던 작가인 그는 한국에서는 '토드의 즐거운 세상'이 EBS에서 방영되면서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p> <p><평화 책>은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2005년 타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되었다가 오래 전에 절판된 경력이 있다. 이번에 원문의 맛을 살려 다시 번역하고 독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적고 그릴 수 있는 활용 페이지를 두어 이전 책보다 완성도를 높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엄마에게	서진선	그림책/평화
	<p>6.25 전쟁 중에 엄마와 헤어진 어린아이가 평생을 북쪽에 있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이다. 세상의 어떤 감정도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더 애뜻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전쟁의 거창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적 사실과 깊은 내면세계를 담담히 전한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살아 있는 표현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다이애나 콘	그림책/노동인권
	<p>희망을 만드는 법 시리즈 9권. 파업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파업이 왜 시작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파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참여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까지 담담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에게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과 시위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려준다.</p> <p>주인공 소년, 카를리토스의 엄마는 어느 날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벌인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주 힘들게 살아갈 만큼밖에 돈을 벌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힘을 합친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한 것이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은 아니다.</p> <p>그들의 파업 소식을 듣고 그동안 관심 없이 스쳐지나갔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온갖 직업의 사람들과 학생들까지도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를리토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냈다. 카를리토스는 친구들과 함께 청소노동자 파업 현장에서 함께 행진하고 시위에 참가하는데...</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벽	정진호	그림책/인권
	<p>비룡소 창작 그림책 시리즈 53권. 2016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2015 볼로냐도서전 라가치상 수상 작가인 저자는 건축학과를 전공한 작가답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간을 색다르게 해석한다. 직선과 곡선, 노랑과 파랑만으로 이루어진 <벽>은 우리를 마술 같은 공간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평평한 바닥에 <벽>을 내려놓고 손으로 한 장면씩 넘기면, 머릿속에 공간 전체와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그림 속 아이를 쫓아갔을 뿐인데, 마치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처럼 공간 감각을 일깨운다.</p> <p>책을 두 손에 펼쳐든 채로 좁혔다 넓혔다 하면, 그림 속 벽의 위치와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며 보는 재미까지 있다. 책을 보며 노는 사이 앞과 뒤, 위와 아래, 안과 밖, 오른쪽과 왼쪽 같은 방향과 공간의 개념이 고스란히 새겨진다. 아이들의 공감 감각을 일깨워 상상하는 즐거움을 주고, 어른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열린 마음을 선사해 줄 것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징검다리	마그리트 루어스	그림책/난민
	<p>2016 미국 어린이도서관협회(JLG) 선정 도서. 2016 키퍼스 리뷰 선정 최고의 어린이 책. 시리아 소녀 라마의 평화로운 시절의 행복, 전쟁과 피난으로 생긴 혼란과 두려움, 새로운 터전에 대한 안도와 호기심을 한 편의 시처럼 간결하고 따뜻하게 덧입혔다.</p> <p>2011년부터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국제전으로 번졌고, 시리아 인구의 절반인 약 천만 명이 안전한 곳을 찾아 국경을 넘으려고 몸부림치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이 책의 작가인 마그리트 루어스는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니자르 알리 바드르의 작품을 보게 된다. 돌멩이로 만든 가족의 이미지는 니자르가 시리아 사람들의 알지 못하더라도 애달프고 간절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p> <p>두 작가는 대륙과 국적과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쟁의 공포를 피해 달아나는 난민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화배우 정우성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그림책에 해설을 덧붙였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우리는 난민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난민
	<p>넓고 깊게 세상을 만나는 십 대들의 책, 문학동네청소년 시리즈의 50번째는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들려주는 여성, 청소년, 난민의 이야기이다.</p> <p>말랄라는 파키스탄 스와트의 밍고라에서 태어나 열두 살부터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워 왔다. 그러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세력을 키워 가던 탈레반 조직의 표적이 되어 열다섯 살의 나이에 피격을 당하고, 영국 버밍엄의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뜬다.</p> <p>이후 2014년, 노벨평화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억압에 맞서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한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카일라쉬 사티아르티와 더불어 그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한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어린이와 젊은이도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스스로 기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 주었다. 그것을 그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냈다."라는 선정 이유와 함께 열일곱 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p> <p>2020년 현재,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말랄라 펀드'를 통해 모든 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말랄라가 이번에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살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이들, 바로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의 얼굴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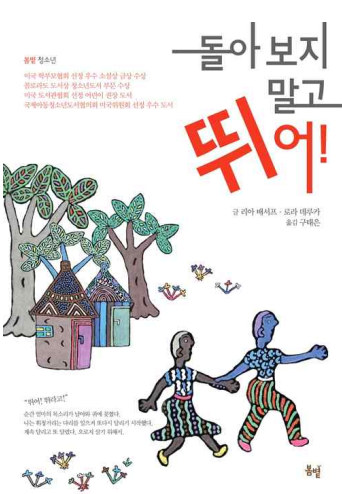
꽃과 나비	민경혜	그림책/여성
	<p>단비청소년 문학 시리즈.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었던 한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그려낸 작품이다. 당당하게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면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끝내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가 두려웠던 춘희 씨는, 자신을 가두었던 육신을 벗어나 한 마리 나비가 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p> <p>일본군 위안부로 짓밟혀 버린 삶,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지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으나 '화냥년'으로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서러움. 식민치하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어 버린 춘희 씨는 자신의 과거를 다 묻고 평생 다른 사람으로 살고자 했으나, 삶을 끝내는 순간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지지는 건 저들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평생 숨죽여 살아야 했던 아픔과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p> <p>시간이 흘러 이 땅의 춘희 씨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일본이 저지른 죄도 함께 사라지고 잊혀지는 걸까? 작가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며, 그 아픔과 억울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는 걸, 춘희 씨와 증손녀 회주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이현혜	그림책/인권
	<p>바람 그림책 시리즈 40권.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성 그림책이다. 안전하려면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을 유괴하거나 성폭행이 일어나는 상황 역시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로 보여 주어서, 성폭행 문제가 아동 안전의 연장선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p> <p>아이가 안전하려면, 상대방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나의 경계도 잘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내 경계를 넘어온다면, 분명하게 '싫어요.', '안 돼요.'라고 말해야 한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려면, 어려서부터 자기 표현을 잘 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아이가 어떤 의견은 자유롭게 말해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건 어른의 몫이다. 아이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주고 존중한다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것이다.</p> <p>이 책은 등교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준수의 하루 일과를 쫓아가면서 사람 사이에서 경계를 지키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아이의 일상 생활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더불어 친구와의 싸움이나 유괴,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아동 사회성 그림책으로 적당하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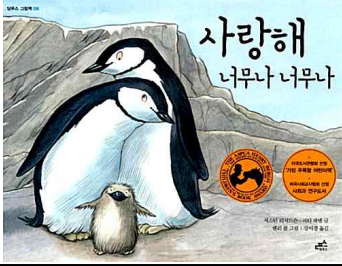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	마리카 마이알라	문학/동물권
	<p>마리카 마이알라는 수권의 그림책에 그림을 그려 이미 2009년 루돌프코이부상을 수상하고 2015 화이트 레이븐, 2016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바 있다.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는 그런 그가 그림을 그리고 글까지 쓴 첫 창작그림책이다. 이 책으로 핀란드 최고의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수여하는 루돌프코이부상을 또 한 차례 받았고, 2019년 북유럽청소년문학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p> <p>로지는 매일 트랙을 달린다. 앞으로, 더 앞으로만. 발밑에서 올라오는 풀 냄새와 경기장 울타리에 심긴 장미 향기에 정신을 팔라치면 다른 개들이 바짝 따라붙고 만다. 경기가 끝난 후엔 기진맥진해 쉬고 싶을 뿐이지만, 좁은 우리 안에선 그마저 쉽지 않다. 앓은 채 깜박 잠이 들 때면 로지는 꿈을 꾸다. 너른 숲과 들판에서 달리는 꿈을.</p> <p>그러던 어느 날, 관중석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로지가 결승선을 넘고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더니, 경기장 울타리를 훌쩍 넘어 버린 것이다. 일순간 고요해진 경기장을 뒤로한 채 로지는 달리기 시작한다. 어두운 숲속을, 누군가의 정원을, 사람들로 가득한 기차역과 차 소리가 시끄러운 시내 한복판을, 파도가 거센 바다 한복판까지도. 긴장한 듯 잔뜩 힘이 들어간 표정으로 숨 가쁘게 달리는 로지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닭답게 살 권리	예영	문학/동물권
	<p>인간에 의해 행복할 권리를 빼앗긴 채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동화 형식으로 들려준다. 유기견 클링이는 강아지 탐정과 주고받는 편지글 형식으로, 실험실 토끼는 안락사당하기 전 하루 동안의 실험실 보고서로, 산란닭은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여 재판정에서 자신이 겪는 끔찍한 대우를 낱알이 폭로한다.</p> <p>또한 율가미에 걸려 모피 농장에 잡혀 온 밍크 까마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 이들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권리를 잃은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긴 여행	프란체스카 산나	그림책/평화
	<p>꽃빛 그림아이 시리즈. 평화로운 삶을 찾아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 가족의 이야기다. 어린 소녀의 눈으로 난민 가족의 고된 여정을 담담히 보여 준다. 이 책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프란체스카 산나는 이탈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두 소녀를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산나는 유럽의 다른 난민들을 인터뷰 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p> <p>전쟁으로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고, 간단한 생필품도 가지지 못한 채,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떠난 두 아이와 엄마. 난민 가족이 겪은 긴 여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된 길이었다. 정든 집, 익숙한 모든 걸 뒤로 한 채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인권, 평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돌아보지 말고 뛰어	로라 테루카, 리아 배서프	문학/평화
	<p>봄별 청소년 시리즈 1권. 미국 학부모회협 선정 우수 소설부문 금상, 콜로라도 도서상 청소년도서 부문 수상작. 내전에 휩싸인 수단을 배경으로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혹독한 운명을 감당해야 했던 수단의 소녀들이 열린 교육을 받고 사회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책이다.</p> <p>포니는 수단 남부의 추쿠뎬 지역에 산다.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마을에서 권위 있는 원로이고, 엄마는 딸인 포니를 오빠들과 똑같이 존중하며 사랑한다. 말팔랑이 포니는 짓곳은 오빠들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사이좋게 뛰어놀고, 명랑한 친구들과 장난치는 게 가장 재미있다.</p> <p>그리고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엄마의 극성스런 당부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선 언제나 우등생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영리한 포니를 좋아하는 남학생도 있다. 하지만 포니는 남자아이 따위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을 만큼 자존심이 강하다.</p> <p>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고작 열세 살에 나이 든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서도 반항조차 하지 못하더니, 학교도 그만두고 급기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자 몹시 충격을 받는다. 자기 또래인 소녀들, 여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p> <p>내전의 먹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밤을 맞은 포니의 마을은 느닷없이 폭격을 맞는다. 한순간에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고, 그날 밤 포니는 부모형제를 모두 잃은 채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정신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모두가 행복할 권리 인권	바바라 피크자, 도라 씨스니	그림책/인권
	<p>봄별 생각 시리즈 1권.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권리를 돌아보는 책으로,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 설명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가거나, 직업을 얻을 때,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지키자는 국제 사회의 약속이다.</p> <p>이 협약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능력을 꽃피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보장된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권리와 자유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은 장애인 친구들의 자유와 권리도 똑같이 소중하며, 행복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을 담아냈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저스틴 리처드슨, 피터 파넬	그림책/인권
	<p>답푸스 그림책 시리즈 6권.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동물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펭귄 로리와 실로 그리고 아기 펭귄 탱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로리와 실로가 버려진 알을 품어 아기 펭귄 탱고가 태어나고, 보통의 엄마 아빠처럼 먹이를 먹이고, 해업도 가르치고, 밤에는 꼭 끌어안고 함께 잠을 자며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따뜻한 그림과 글로 보여주고 있다.</p> <p>펭귄 로리와 실로 그리고 아기 펭귄 탱고를 통해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직접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한 가족으로, 사랑한다면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라도 사랑을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입양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동의	레이첼 브라이언	그림책/인권
	<p>밝고 활기찬 일러스트로 '동의'와 '신체 결정권', '상호 존중'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가이드북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동의는 차 마시는 것(Tea Consent)'이라는 영상으로 전 세계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레이첼 브라이언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상황들(간지럽히기, 원하지 않는 선물, 혹은 문자 메시지와 채팅)을 통해 '동의'라는 개념이 우리의 건강과 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임을 노련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설명한다.</p> <p>이 책 <동의 : 너와 나 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사회를 접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모든 아이, 그리고 '동의'와 '존중'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싶은 모든 어른에게 완벽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p> <p>그림과 이야기 출처: 알라딘(https://www.aladin.co.kr)</p>	